



도덕 6

헬리콥터 부모와 캥거루족

“선생님, 오늘 숙제가 뭔가요?”

“선생님, 내일 준비물이 뭐죠?”

요즘 선생님들은 이러한 질문을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게서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의 숙제나 준비물은 물론이고 학교생활 및 방과 후 모든 일정을 부모가 계획하고 통제하며 수시로 점검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빙빙 돌며 관리하고 감시하며 중요한 사안을 일일이 챙겨주는 부모를 일컬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초·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헬리콥터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그들의 학점 관리, 취업 준비는 물론 심지어 결혼까지 챙기려 합니다.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일 때 숙제와 친구를, 중·고등학생일 때 입시를, 대학을 졸업해서는 취업을 챙기던 헬리콥터 부모들이 이제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많아지는 것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미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 집에 얹혀사는 성인 자녀를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신(新)캥거루족’이 등장했는데 이는 결혼해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구직난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얹혀사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저 안락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들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이 이야기에서 본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 헬리콥터 부모와 캥거루족은 어떤 특징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족
특징		
문제점		

◆ 헬리콥터 부모와 캥거루족이 자주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